

부활 제 2주일

기도서 P. 281 A해

제1독서(사도 2, 42-47)
제2독서(베드린 1, 3-9)
복음(요한 20, 19-31)

숲정이

발행 편집 인: 전주교 전주교구 사 목 국 관 리 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3201

□ 강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상 호 신부

우리는 지금 예수부활의 축제 속에 기쁨과 환희와 희망에 차 있습니다. 예수부활은 온 인류와 온 세계의 축제가요 희망입니다. 10여일 전에 있었던 미국 콜롬비아 우주선의 성공적 이착륙 비행은 또 한번 세계를 놀라와 희망으로 들뜨게 한 과학의 대 성공이요 개가라고 하겠습니까. 사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특히 토마 사도는 예수의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 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까지 고집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현대인들은 예수의 부활뿐 아니라 신의 존재마저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학이란 이론적이고 실험적이며 증명을 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도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예수부활을 증명하라, 천당·지옥을 증명하라라는 태도로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신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인간이 너무나 물질적이며 현세대적이며 감각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정신적이며 미래적이며 초자연적인 것을 도외시하는데서 나오는 결과라고 하겠습니까. 토마 사도의 태도야말로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0여 사도들은 처음 예수님을 뵈은 다음 성신을 받았으나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성신을 못받아서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사건은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진정 결손된 마음으로 믿는 이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이 평화는 과학과 물질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요 성령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보지 않고서도 믿는 자는 진복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과학만 앞세우고 증명만 요구하지 맙시다. 과학은 자칫하면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갈지 모릅니다.

과학이 초고도로 발달된 오늘에도 온 인류가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류가 기대했던 과학은 평화를 주지 못하고 불신과 미움과 공포만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참평화는 믿음과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베드루 사도가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신앙을 고백했을때 예수님은 이는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쳐준 것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토마 사도와 같이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결허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성령의 은총을 구하면서 착실히 살아갑시다.

부활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은 행복을 찾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은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이 지상의 생명과 행복은 누릴수록 불만과 허탈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고통과 시련과 죽음을 이겨야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활은 희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에 희망을 걸고 좌절하거나 쉬지 말고 현세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활을 준비합시다. 이것이 어제나 오늘이나 세상 끝날 때까지 변함이 없을 부활의 참 신앙인 것입니다. <상관 주임신부>



왜 고독한가?

생활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모두 홀어져 산다. 한 집안이 한테 모여 살던 때가 옛그제 같은데, 핵가족(核家族) 안에서 자식들은 또 부모를 떠나 유학길을 떠나 있다. 온통 홀어져 있다. 살려고, 아니 남보다 더 잘살려고 발버둥치다보니 국민학교 때부터 부모를 떠나 제 나름의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데 익숙해져 있다.

현대는 삶의 영역이 다원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고독해지고 있다. 홀어져 사는 것도 그렇고, 비록 한 울안에 살아도 가족끼리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시간이 적어짐에서 더욱 그렇다. 여기에서 많은 사회문제가 생기고 있다. 생활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가정이 점점 삭막해지는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부부간에도 서먹서먹한 관계로의 탈바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을 점점 이기주의로 몰고가고 있다. 여기에 오늘의 문제가 있다.

초대 교회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활로 보여준 것이다.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며,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도하였다.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가진 것을 나누어 주며 함께 산 것이다. 이것을 보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로 불어났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 아무도 혼자 사는 사람이 없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살게 된 우리인지라, 초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거울인 것이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식구들끼리 함께 자리를 하는 시간을 자주 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야 한다. 믿는 모습은 생활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숲정이 산책



조타수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 사제생활 쇄신 집중세미나 (Aggiornamento) 개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모습을 누리  
에 드러내는 사제! 이는 님의 열원이며 사제들의 갈구  
요 세상의 소망이다.

현대에 적응하는 사목생활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 검  
토하며 새 방향을 찾고저, 깊은 영성 생활과 사제단의  
진밀한 일치를 위한 3주간의 연수 교육이 드디어 내일  
부터 시작된다.

모든 사제들이 주님 안에서 풍요로워지고 그동안 건강  
하실 수 있도록 간단없는 기도와 영·육간의 선물로 이  
세미나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보다 큰 관심과 뜨거  
운 성원을 가득 보내드리자.

1. 일시 : 4월 27일(월)~5월 16일(토) 3주간
2. 장소 : 서울 상지회관(전화 92-3547, 92-5194)  
132-00 서울 성북구 돈암2동 413~79  
(아리랑교개, 스카이웨이 주유소 위)
3. 유의사항
  - ① 연수회동안 본당에는 미사가 없으니 봉헌할 미사  
는 미리 신청 바랍니다
  - ② 5월 3일과 10일 두 주일은 「말씀의 전례」(공소예  
절)로 대신하오니 빠짐없이 참례하십시오.
  - ③ 혼인예정자는 미리 본당신부님과 상의해 주시고  
병자성사 및 기타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교구에  
연락,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④ 세미나 기간중 면회는 금지되오나 본당대표에 한  
하여 휴식시간(1시 30분-3시)에 잠깐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협조사항
  - ① 본 세미나의 성공과 사제단을 위해 영적, 물질  
빨랑카(예물)의 후원을 바랍니다(우편접수나 직접  
전달 바람).
  - ②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정성껏 바쳐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적으로 뿐 아니라 공식 모임에도 꼭  
바쳐 주십시오).

##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아버지 하느님  
사제생활 쇄신을 위해 3주간 특별 연수회를 갖게  
되는 우리 교구 사제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사랑을 깨달아  
이를 증거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봉사를 위하여  
이를 실천하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믿음을 본받아  
이를 지켜가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가난을 수락하여  
이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겸손을 배워  
스스로 낮아지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 삼위일체를 본받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천주교 전주교구

## 교회상식 ①

### 빠 스 카

빠스카란 회브리어 “파사” 즉<주께서 거르고 지나가  
다, 넘어간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구약에는 이스라  
엘 백성의 에집트에서의 해방을 기념하는 것을 가르키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로 인한 우리의  
구원을 가르키는 신비를 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서는 인류를 구원코저 간택하신 저들을 해  
방시키시기 위해 모이세를 보내주셨다. 그러나 에집트  
왕이 허락치 않자 모이세는 하느님으로부터 파견되었다  
는 것을 증명키 위해 많은 기적을 행하였고, 끝내는 에  
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게 하였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은 주께 양을 바치고 자기집 문지방에 그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함께 먹음으로써 그 재앙을 면케되었고, 에집  
트로부터 해방되었다.

그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기억키 위해 빠스카제  
(해방절)라는 명절을 지내게 되었다. 그러나 하느님이  
구약의 백성에게 행하신 이 업적은 인류를 구원하고 하  
느님께 완전한 영광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업적의 서막인  
것이다.

신약에 있어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빠스카 제물이 되  
신 것이다. 즉 당신 자신이 양과 같이 성부께 제물이 되  
시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는 에집트 아닌 악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수난 부  
활 승천의 신비가 신약의 영원한 빠스카로 이루어 지는  
것이다.

### 부 활 달 갈

사순절의 완성인 부활절에는 색깔 한 달걀을 서로 주  
고 받으며, 부활을 축하하는 미풍이 있다. 옛날에는 달  
걀이 화장한 몸과 풍요의 상징이었다. 이유는 달걀이 귀  
하여 고급 음식의 재료이었기 때문이다.

중세기에는 사순절 동안 달걀을 먹지 않고 모아서 부  
활주일에 먹기도 하고 선물로 하기도 하였다. 아끼던 달  
걀을 서로 주고 받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나누었던 것이  
다. 이러한 습관이 널리 퍼져 오늘날 어느 곳에서는 부  
활달걀의 행사가 있다.

부활달걀은 돌무덤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  
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병아리가 달걀껍질을 깨고 나오  
듯이 우리도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주님의 부활로 새로  
태어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부활달걀도 토요일 부  
활성야 예절중에 사제의 강복을 받는다. <김기수 신부>

## 사제양성 후원 성금에 최대의 성의를.....

부족한 사제양성 성소후원을 위한 성금운동(퇴직  
적금)에 적극 참여합니다.

저금통의 동진 한푼 한뼘이 신학생의 삶이 되고  
책이 됩니다. 교수들의 뜨거운 정성을 빕니다.

—교구 사제 양성 후원회—

- 표구 일 절
- 서 화 매 매

## 윤 표 구 사

전주시 중앙동 1가 48  
(다가동 파출소 앞)  
윤 병 훈(아오스덤)  
전화 ② 6445

전기 온수기 가스렌지 및 시설  
가스 온수기 각 종 싱크  
백 금 표 싱크 주방

(東南綜合 싱크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金 樂 均(요셉)

귀가 어두운 분께 보청기를 권합니다  
의료 과학 기계 시약

## 東南醫療科學器械商社

전주시 서노송동 639~40  
(중앙성당 옆)

☎ ③ 6900 야간 ⑥ 0496

金 樂 均(요셉)

◀ Ecclesia ▶

### 전동 3주 시청각 교육 실시

사제생활 새신을 위한 집중 세미나가 개최되는 기간(3주) 동안 전동 사도회에서는 다채로운 시청각 프로그램을 만들어 대대적인 자체교육 계획을 시도하고 있다. 앞서가는 본당의 면모를 보이는 참으로 뜻깊고 알찬 교육이 되리라 믿는다.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일밤 8시에 약 1시간 정도 값진 영화와 슬라이드를 통한 신앙교육과 신심 향상을 꾀하며 교우들간의 더욱 긴밀한 우정과 화합의 순간을 마련코자 사도회는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타 본당 교우도, 비신자도 누구나 기꺼이 초대한다. 모두들 부담없이 나와 새로운 지식과 신앙의 감동을 듬뿍 받아가시기 바란다. 사랑으로 초대하는 사랑의 장(場)이니.....

전동의 사도(使徒)들과 어른들께 지혜 감사드립니다.

### 파티마 본당 수녀원 준공

신설된지 만 3년밖에 안된 전주 막내동이 파티마 본당이 역척같이 또 새 수녀원을 신축했다. 지난 부활 대축일을 기해 준공식을 갖은 수녀원은 전령 22명에 총공사비 900여만원을 들여 지은 아담한 양옥으로 성당 뒷편에 자리 잡았다.

아직 1,000명이 채 미달하는 작은 본당이지만 본당의 열의와 교우들의 우애는 그어느 본당 보다는 뒤지지 않을만큼 대단하다. 더구나 원로 하시지만 젊은이가 무색할 정도의 정력을 쏟으시는 주임(김영일)신부님과 각별한 사랑과 신망을 받는 수녀님들(성가회)의 충으신 인상이 한결 새 공사를 앞당긴듯 하다. 교우들의 타는 신심과 열렬한 성원의 뒷받침은 말할것도 없고, 피땀의 역사를 이루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축복과 깊은 감사드려 마지 않는다.

### 대야 본당 25년사(史) 발간

금년으로 본당 설립 만 25주년을 맞는 옥구군 대야교회에서 노심초사(勞心焦思)해 엮은 본당약사(略史)를 간행, 좋은 화제가 되고 있다. 그간의 지나온 발자취와 땀에 젖은 주옥같은 사연들을 절절히 수록, 깊은 감동과 관심을 불러 일으킨 본 유인물은 모조 8월, 타자 40페이지의 작은 책자.

시골 한 본당의 짧은 역사이긴 하지만 지난 일들을 이토록 자상히 간추려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은 어쨌든 대단한 과업이요, 훌륭한 규범이 아닐 수 없다. 발전하는 대야 본당에 더욱 큰 성원과 주님의 축복을 빈다.

아울러 본 약사에 관심을 두고 처음부터 집필해 두셨던 故 위태준 회장님과 오늘의 햇빛을 보게한 현 주임 한기호 신부님 그리고 김창수 회장님의 각별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2차 로사리오 모임

—가톨릭 신자 내무 공무원 모임—

유난히도 길고 추웠던 지난 겨울 도내 내무 공무원 신자들은 1월 25일 중앙 천주교회에서 1차 모임을 성공리에 마친바 있는데, 이번 4월 26일에 예청대로 2차 모임을 갖는다고 한다. 오전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회합과 미사를 갖고, 오후에는 2시간의 강의와토의 시간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도내 모든 내무 공무원 신자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라며 또한 그들이 하는일에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 하길 빈다.

일시—1981년 4월 26일 10시

장소—전주 가톨릭센터

### 요심이 (1+05) 김병오



### 직원 모집 공고

- 모집부문 및 자격
    - ① 여자 : ○명
    - ② 자격 : 만18세이상 21세미만 고졸이상 졸업자 (주산, 부기 2급이상자격증소지자우대)
  - 제출서류
    - ① 이력서 1통(명함판사진2매)
    - ② 주민등록등본 1통
    - ③ 신원증명서 1통
    -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⑤ 최종학년 성적증명서 1통
    - ⑥ 제기능 자격증 사본 각1통
  - 접수마감 : 81. 5. 2. 후5시 30분
  - 전형방법 : 필기 시험, 기능 실기 및 면접
  - 전형일자 : 81. 5. 4. 후4시
  - 접수처 : 당조합 총무과
  - 기타 : 자세한 사항 직접문의
- 노송 신용 협동 조합  
전화 ④4834 ④2436

□ 생화 · 각종화분 · 신부 부케  
교우분들, 자주 들려 주세요

### 진 선 미 꽃 집

전주극장 골목 전화 ②2628  
범띠도(떡배) · 이 마리아

### □이전 안내

금 · 은 · 보석 · 시계

### 금 보 장

(전 ·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 (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9489(사구팔구) ④4988

###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④ 4 4 5 1  
유 율 리 안 나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공지사항

1. 사제생활 쇄신 집중세미나: 내일부터... (기사 2면)
2. 하루 마리아 빨리... 오늘 오전 9시 45분, 해성 중·고 교정
3. 성가대 지도자(회장·지휘자·반주자) 모임... 오늘 오후 2시 교구청  
※ 교구 차원의 성가대 연합회 구성을 위해서
4. 2차 로사리오 모임(내무공무원)... 오늘 오전 10시 센터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유종환
보좌	신부	박김익
사도	회장	김병환
		한호구

1. 사제생활 쇄신 집중교육(4월 27일~5월 16일)  
"사제들을 위한 기도"를 매일 바쳐주시기 바라며 팔랑카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전국 하루 마리아 빨리: 4월 26일 오전 9시 45분부터 해성중고 체육관, 회비 성인-1,000원, 학생-500원
  3. 견진자 신청: 6월 7일 성신강림 대축일을 기하여 견진성사를 받으실 분은 5월 23일까지 사무실에 신청  
교리기간-5월 27~29일, 6월 3·4·5 6일간  
오전반-10시 30분, 오후반-7시 30분
  4. 사제양성을 위한 돼지저금통: 5월 10일(성소주일)에 봉헌합니다
  5. 전례분과위원 소집: 공소예절 안전토의 공식미사 후 전원 참석 요망 사무실
  6. 레지오 창설 25주년 대비시험: 5월 3일 공식미사 후 레지오 마리에 단원 전원 참석 바랍니다
  7. 4월 27일부터 5월 16일까지 공소 예절안내: 평일 오후 7시·금요일 10시 30분, 주일과 토요일은 병합없음
  8. 부활절 꽃 및 초 봉헌하신 분: 전주안과 정로사리아 10만원, 이봉열(미카엘라) 10만원, 문산부인과 기안젤라(5만원), 박정옥(세시리아) 5만5천원, 윤귀자(로사리아) 3만원, 익명 2만원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1,126,305원 성금요원금: 129,001원

- (사도회 주관) 봉헌금 봉헌있습니다
4. 신부님 피정중 기도와 물적예물을 사무실에서 접수
  5. 돼지저금통: 5월 17일에 내주세요
  6. 신부님들 피정중에 병자성사나 장례미사는 사무실이나 교구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49,990원  
예루살렘 성지복구 헌금: 56,38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주일을 거룩하게 지냅니다
  2. 본당 올드레: 28일(화) 저녁 7시 30분
  3. 사도회 릴레: 다음주 10시 전례후
  4. 본당 개수공사 추진계획: 적극 참여합니다 (운동장 포장 및 성당 납부 제안)
  5. 미사안내판 기증: 익명(감사합니다)  
부활절꽃 기증하신 분-이루시아(국화꽃 봉헌), 익명(5천원), 윤수산나·백글라라·윤수산나·안금순(각 5천원), 의덕의 거울 L.M(화분 1점), 셋별 L.M회(3천원) 감사합니다
  6. 다음주일 전례담당  
아침 6시 주례자-이정빈, 해설-조동근  
낮 10시 주례자-한형수, 해설-김낙완  
밤 7시 30분 주례자-김낙균, 해설-한형수
- 지난주 봉헌금(부활대축일): 411,320원  
교무금: 464,700원 성금요일 봉헌: 62,440원

(노송동)

전화 ⑦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박춘근

1. 주일을 지키는 신자생활을 합니다: 당신은 1주일(하루 24시간×7일=168시간)에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시간은 과연 몇시간이나 됩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말씀의 전례 있음
  2. 사도회 릴레: 오늘 공식미사 후(상임위원)
  3. 베소라 성서강의 임시휴강: 5월 12일까지
  4. 금주의 성경읽기: 구약의 관관기와 쿿기 전례
  5. 성령기도회: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6. 성가정회 모임: 매주(수) 저녁 7시 30분부터
  7.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입니다
  8. 아치애스 행사: 다음주 10시 30분부터 12시부터 교본경시대회(시험) 교본 5장, 28장, 32장 행동·협조단원들 전원 참석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596,655원

(숲정이)

전화 ③7366번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1. 사제생활 쇄신 특별 연수: 4월 27일부터 3주간 피정 2주동안 주일미사는 말씀의 전례로 합니다
  2. 마리아 빨리(4월 26일): 9시 30, 해성중·고등학교
  3. 부활절에 꽃·초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사도회 릴레: 다음주 공식(말씀의 전례) 후
  5. 차주 전례담당: 해설-이기호  
독서-김창영·김남근, 기도-홍성조
- 지난주 봉헌금(부활대축일) 봉헌금: 485,180원  
교무금 미수: 50,000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1. 사제생활 쇄신 세미나(27일~5월 16일): 팔랑카 사무실에서 접수
  2. 예비자 교리: 매주일 체펠라멧다 지도
  3. 5월 3일 전례: 오전 10시 30분, 저녁 8시, 토요일 저녁 8시(공소예절)
  4.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일부분을 교리교사님께 맡겨 보세요
  5. 학생미사: 없음
  6. 5월 사도회 릴레: 다음주 전례후
  7. 진복회: 미사후
- 부활절 헌금: 750,440원

(전동)

전화 ③3222번

주임	신부	김병준
보좌	신부	박영준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제생활 쇄신 집중세미나(4월 27일~5월 16일) 미사없고 말씀의 전례와 영성체(연수회에 참가하시는 신부님들 위해서 신자들의 많은 기도바랍니다)
  2. 클라라 형제회: 오후 1시 30분
  3. 마리아 빨리: 오전 9시 45분, 해성중·고등학교에서
  4. 돼지는 먹이를 많이 주어야 살이 찹니다: 돼지저금통 5월 10일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5. 헌옷 수집: 빈첸시오·빠울로회에서 가난한 형제를 위해 헌옷을 수집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064,806원

(복자)

전화 ⑤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성
사도	회장	조성호

1. 사도회 릴레: 오늘 공식미사 후 상임위원-정부회장·각 분과위원 참석
2. 일일 마리아 빨리: 오늘 9시~오후 5시
3. 신부님들 피정중: 매주일 매미사 시간에 공소에절함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5월 3일·10일 양주일은 말씀의 전례: 꼭 참여 바랍니다
  2. 사도회 릴레: 다음주
  3. 베레시디움 주회: 전과 같은(단장은 훈화 준비)
  4. 유아세례식: 오후 3시 미사후
  5. 성모회 릴레: 공식미사 후
  6. 부활꽃·제이퍼 기증: 감사드립니다
- 지난주 봉헌금: 274,510원 교무금: 265,000원